



지난 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8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와 kt위즈의 경기에서 KIA 선수들이 승리가 확정된 뒤 하이파이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MLB 소식

**류현진 90위·커쇼 1위
선발투수 평가**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 평가에서 90위를 차지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인 스포팅뉴스는 27일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발 투수들을 최근 성적과 나이, 부상 전력 등을 고려해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1위는 '지구 최고의 투수'로 불리는 클레이턴 커쇼(로스앤젤레스 다저스)다. 커쇼는 올해 시범경기(6차례 등판) 21.1이닝 동안 단 한 점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투구를 했다.

2위는 2016~2017년 2년 연속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받은 맥스 셔저(워싱턴 내셔널스), 3위는 지난해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의 주인공 코리 클루버(클리블랜드 인디언스)다.

일본인 투수 중에는 다쓰시마 유(시카고 컵스)가 13위로 가장 순위가 높다.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한 명인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는 30위, 다나카 마사히로(뉴욕 양키스)는 31위, 마에다 겐타(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39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보스턴 2407억원

ML 최고 연봉 구단

올해 미국프로야구(MLB) 메이저리그 최고 연봉 구단 순위에 큰 변화가 생길 조짐이다.

AP 통신이 각 구단 개막전 로스터 25인 로스터와 부상자 명단에 오른 선수들의 연봉 자료를 모아 27일 예상한 올해 MLB 30개 구단 연봉 총액 순위를 보면, 보스턴 레드삭스가 2억2300만 달러(약 2407억원)로 전체 1위에 올랐다. 보스턴의 뒤를 이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2억300만 달러·2191억원), 시카고 컵스(1억8300만 달러·197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이 부문 1위를 달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4위로 떨어졌다.

다저스와 워싱턴 내셔널스는 1억 8000만 달러(1943억원)로 공동 4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가 1억7000만 달러(1835억원)로 6위, 그리고 뉴욕 양키스가 1억6700만 달러(1803억원)로 7위에 각각 자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선수 중에선 에인절스의 마이크 트라웃가 3408만 달러(366억3600만 원)를 받아 3년 연속 1위였던 커쇼(다저스·3천400만 달러)를 따돌리고 생애 처음으로 최고 연봉자에 오를 것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극강의 타순 '변형 카드'로 날개 단다



**2·3번 김주찬·버나디나 교체
이명기 1·9번 오가며 체력안배**

KIA 타이거즈의 전력 극대화를 위해 '2·3·5 변형 카드'를 쓴다. KIA는 개막과 함께 지난해 우승을 이끌었던 타선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날 12개의 안타에 이어 개막 두 번째 경기에서는 4개의 한방까지 더해 14점을 뽑아내며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를 보였다. 리드오프 이명기를 시작으로 9번 타자

김선빈까지 7명의 3할 타자가 그대로 올 시즌에도 타선을 구축하면서 별다른 걱정이 없어 보이는 공격이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상대를 공략하기 위해 김기태 감독은 2·3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좌투수 kt 피아벤트와의 개막전을 이명기(우익수)-김주찬(1루수)-버나디나(중견수)-최형우(좌익수)-나지완(지명타자)-

안지홍(2루수)-이범호(3루수)-김민식(포수)-김선빈(우익수)으로 치른 김 감독은 두 번째 경기도 9명의 선수로 라인업을 짰다. 변화는 있었다. 우완 주권을 상대하기 위해 2번과 3번을 맡았던 우타자 김주찬과 좌타자 버나디나의 자리를 바꾼 것이다. KIA는 27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도 2번 버나디나 3번 김주찬의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섰다. 김기태 감독은 "2, 3번은 그때그때 상대에 따라 바뀌면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별히 고민할 것 없는 극강의 타순, 큰 틀을 유지한 채 타자들에게 역할을 맡기겠

다는 계획이다. 시즌 중반에는 1·9번이 일시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다. 리드오프 역할을 하는 이명기의 체력 안배 차원에서 1번과 9번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게 김 감독의 이야기다. 마운드에서는 맞춤형 5번 카드가 준비됐다. 삼성과의 주중 3연전을 우완 팻딘으로 연 KIA는 28일에는 이민우에게 선발 역할을 맡긴다. 그리고 29일에는 좌완 정용운이 선발로 마운드에 먼저 오른다. 선발 경쟁을 했던 사이드암 박정수의 최근 페이스가 주춤한 데다 삼성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정

용운이 5선발로 낙점됐다. 하지만 5선발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감독은 마운드 전력 극대화를 위해 "상황 상황에 따라 5선발에 변화를 주겠다"고 '5선발 카드'를 유동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 마운드에는 임기영이라는 전력 보강 카드도 있다. 우승 멤버 그대로 통합 2연패에 도전하는 만큼 KIA는 큰 변화 없이 새 시즌을 시작했다. 김 감독이 영광 재현의 2018시즌을 위해 내세운 '2·3·5 변형 카드'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두 경기 타율 5할5푼 이명기 "앞으로 더 잘해야죠"

덕아웃 T 특특

▲의욕만 앞섰어요 = 복귀전이 아쉬운 '예비역' 문경찬이다. 상무에서 군복무를 했던 문경찬은 지난 25일 kt와의 경기를 통해 복귀전을 치렀다. 오랜만에 마운드에 오른 그는 1이닝 2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실점은 하지 않았지만 문경찬에게는 아쉬움이 남은 첫 경기였다.

문경찬은 "긴장을 해서 힘이 많이 들어갔다"며 "결과가 좋았지만 볼을 많이 던진 게 아쉽다. 의욕만 앞선 것 같다. 다음에는 더 차분하게 경기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뺑가 아닌가 = 김기태 감독을 들쭉이게 했던 개막 시리즈 1회였다. KIA는 kt와의 개막 2연전에서 1회 희비가 엇갈리면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개막전 1회 1사 만루에서 이범호의 삼진에 이어 김민식의 중견수플라이가 나오면서 2득점에 그

치며 4-5 역전패. 두 번째 경기에서는 1회에만 6점을 만드는 집중력으로 승리를 챙겼다. 24일 1회말 공격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쳐내려고"라는 생각했다면서 패배의 아쉬움을 토로했었던 김 감독. 25일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공격이 진행되자 김 감독은 "또 뺑가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밝혀 사람들을 웃겼다. 김 감독은 "걱정했는데 이범호가 3점을 냈다"며 웃음을 보였다.

▲광주경기 안 와야겠어 = 고향 방면에 나선 이원석의 한 마디에 삼삼 덕아웃이 웃음바다가 됐다. 홈런이 끝나고 덕아웃으로 향한 이원석을 맞이한 두 사람. 이번 시즌 KIA 홈경기 볼보이를 맡게 된 동성고 선수들이었다. 동성고 출신인 이원석은 후배들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깎듯하게 인사를 한 두 선수가 대선배님을 향해 뭐라고 말을 건넸고, 이원석은 이내 웃음을 터트리면서 "광주경기 안 와야겠어"라고 말했다. "인사를 하자마자 도구를 달라고 한다"며 웃음을 보인 이원석. 그는 "광주에 오지 않겠다"는 말과 달리 후배들의 손을 잡고 격려의 인사를 했

고 "도구를 많이 못 챙겨왔다. 다음에 원정 오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두 경기니까 지금이라도 해보야죠 = 개막과 함께 공격대장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이명기. 그는 개막 2연전에서 9타수 5안타의 맹타를 휘두르면서 0.556의 타율을 기록했다. "팀 내 1위"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명기는 "두 경기하는 동안이라도 해보야죠"라고 웃어보였다. 비록 두 경기지만 기본 좋은 1위라는 반응. 하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게 이명기의 이야기다. 이명기는 "시작은 좋았지만 아직 모른다.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며 꾸준한 시즌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LPGA 시즌 첫 메이저를 잡아라

ANA 인스퍼레이션 내일 개막...유소연 2연패 도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8시즌 메이저 대회가 29일 막을 올린다. 29일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파72·6763야드)에서 열리는 ANA 인스퍼레이션(총상금 280만 달러)은 1년에 5차례 열리는 메이저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벤트다. 2014년까지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으로 열려서 골프팬들에게 친숙한 이 대회는 2015년부터 일본 기업인 전일본공수(ANA)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으면서 대회 명칭이 바뀌었다.

지난 시즌 5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3개를 휩쓴 '코리아인 스타'는 이번 대회에서도 정상에 도전한다. 한국 선수들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유소연이 우승한 것을 비롯해 US여자오픈 박성현, 브리티시오픈 김민경 등 세 명이 메이저 대회를 제패했다. 한국 선수들의 최근 기세는 좋은 편이다. 앞서 열린 6차례 대회에서 3승을 휩쓸었던 유소연(2015년)은 2016년과 2017년(스톡스)과 지난해(KIA 클래식)가 나란히 우승했다. 역시 '골프 여제' 박인비와 지난 시즌 올해의 선수, 상금왕, 신인상 등을 석권한 박성현 등이 한국 팬들에게는 주목할 선수들이다. 박인비는 2주 전에 열린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하며 지난해 3월 HS-

BC 챔피언십 이후 1년 만에 우승컵을 품어 안았다. 메이저 대회를 대비해 퍼터를 일차원으로 교체한 박인비는 2013년 이후 5년 만에 이 대회 패권을 탈환을 노린다. 박성현은 메이저 무대에서 최근 부진을 털어내겠다는 각오다. 지난 시즌 LPGA 투어에 진출한 박성현은 그동안 컷 탈락이 한 번도 없었으나 지난해 KIA 클래식에서 처음으로 3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라운드 당 평균 퍼트 수 31.36개로 134위에 머무는 등 '2년차 징크스'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에서 일궈낸 만큼 올해도 메이저 대회에서 견재할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기대된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유소연과 이번 시즌 신인으로 상금, 올해의 선수, 신인상 부문 선두를 달리는 고진영도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다. 유소연은 2001년과 2002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이후 16년 만에 이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1장 남은 마스터스 출전권 잡아라

최경주·안병훈 30일 PGA 휴스턴오픈 출격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 마스터스는 골프 선수라면 누구나 출전하고 싶은 꿈의 무대다. 오픈대회인 US오픈, 디오픈, 그리고 선수권대회 성격의 PGA챔피언십과 달리 인비테이션널 대회인 마스터스는 출전선수가 90명 안팎이라 메이저대회 가운데 가장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올해 마스터스 출전선수는 고작 87명이다. 1997년 86명 이후 두 번째로 적은 인원이다. 86명은 이미 정해졌다. 남은 1자리는 오는 30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휴스

턴 골프클럽(파72)에서 나흘 동안 열리는 PGA투어 휴스턴오픈 우승자를 위해 남겨뒀다. 최경주와 안병훈은 마지막 1장 남은 마스터스 티켓을 노리고 이 대회에 출사표를 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마스터스에 출전하지 못했던 최경주는 코랄레스 폰타나 리조트&클럽 챔피언십 공동 5위로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2016년과 작년에 마스터스에 출전했던 안병훈은 3년 연속 마스터스 출전을 노리고 1주일만 휴스턴오픈을 준비했다. 한때 타이거 우즈(미국)와 양강 체제를 구가한 에니 엘스(남아공)와 세계랭킹 1위 자리에 올랐던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도 마스터스 출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엘스는 1994년부터 작년까지 마스터

스에 딱 한 번 결장했고 웨스트우드는 13년 연속 개근했다. 마스터스를 앞두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려는 강호들도 여럿 출전한다. 휴스턴오픈이 열리는 휴스턴 골프클럽은 마스터스 직전에 열리는 대회라는 점을 활용해 유명 선수의 출전을 유도하려고 그린 스피드를 마스터스 개최지 오거스타네셔널 골프클럽과 똑같이 조성해뒀다. 조던 스피스(미국),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리키 팔올라(미국) 등 세계랭킹 10위 이내 선수가 3명이나 출전하는 이이다. 세계랭킹 15위 헨리크 스탠스(스웨덴)와 멕시코챔피언십 우승자 필 미켈슨(미국), 세계랭킹 20위 맷 쿠처(미국) 역시 마스터스에 대비한 워밍업 무대로 휴스턴오픈을 선택했다. 강성훈과 김민휘도 '언더독'의 반란을 꿈꾸며 출전한다. 작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으로 마스터스 출전 자격을 일찌감치 확정된 김시우는 출전하지 않는다. /연합뉴스